

보도	2026.9.9.(수) 14:00	배포	2026.9.9.(수)
담당부서	디지털금융총괄국 디지털금융총괄팀 디지털리스크분석팀	책임자	국 장 이 석 (02-3145-7120)
		담당자	부국장 손인호 (02-3145-7125)
	IT검사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팀 장 이정운 (02-3145-7540)
		담당자	국 장 유희준 (02-3145-7420)
			부국장 김송범 (02-3145-7416)

프런티어 AI 기반 보안 위협 대비 강화 등을 위한 「**全 금융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(CISO) 간담회**」 개최

I 간담회 개요

- 금융감독원은 '26.9.9.(수) 이종오 디지털·IT 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「**全 금융권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(CISO) 간담회**」를 개최
 - 이번 간담회는 프런티어 AI 기반의 사이버 위협이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, 경영진 중심의 대비 태세 강화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
 - 특히, 근본적인 사고 예방·대응을 위해서는 대응 체계 고도화와 함께 금융회사의 IT 기본 통제 준수가 필수인 점을 강조하면서, 현재 진행 중인 자율 시정*에 충실히 참여하여 사고 예방·감축에 힘써달라고 당부
- *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자가진단 도구를 기반으로 금융회사 스스로 IT 기본통제 운영실태를 점검·보완

全 금융권 CISO 간담회 개요

- ☑ **일시/장소** : '26.9.9.(수) 14:00 ~ 15:00, 금융감독원 대회의실(9F)
- ☑ **참 석 자** : (금융감독원) 디지털·IT 부문 부원장보, 디지털금융총괄국장, IT검사국장
(금융회사) 업권별 주요 금융회사 CISO (총 16社)
(협회 등) 전국은행연합회, 금융투자협회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, 여신금융협회, 저축은행중앙회, 한국핀테크산업협회 IT 담당 임원 등

1

배경 및 경과

- 지난 4월 엔트로픽社의 프런티어 AI 미토스가 등장한 이후 AI 기반의 보안 위협이 고조*되는 가운데, 국내 금융회사 대상 사이버 공격이 빈발하고 공격 방식 또한 고도화되는 모습

* 금년 중 국내외 보안 전문기관의 신규 취약점 공개 건수가 크게 증가

美 NIST 신규 취약점(건): ['25.上] 23,664 → ['25.下] 24,497 → ['26.上] 35,872 (↑ 51.6%, yoy)

KISA 보안 공지(건): ['25.上] 136 → ['25.下] 141 → ['26.上] 199 (↑ 46.3%, yoy)

- 특히, AI를 해킹에 악용할 경우 보안 취약점의 신속한 탐지뿐만 아니라, 다수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자동화된 대량 공격까지 가능한 만큼, 금융 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상황

AI 기반의 사이버 공격 사례

- ◆ **[AI 기반 침투 도구]** 방화벽 등 보안 장비에 대한 대규모 스캔·해킹 공격에 AI 기반의 해킹 도구 (CyberStrike AI) 사용 ('26.1~2월)

• AI 기반 자동화, 여러 AI 모델 활용, 보안 도구들을 상황에 맞게 골라서 사용하는 지능형 오케스트레이터 (orchestrator) 엔진 탑재 등이 특징

* ① 자연어로 명령하면 AI 에이전트가 100개 이상의 보안 도구를 자동 실행하여 보안 취약 시스템 탐색,
② AI가 침투 계획 수립 및 공격 코드 작성, ③ 클로드, GPT-4, 제미나이, 딥시크 등 15개 이상 AI 활용

- ◆ **[AI 내장형 악성코드]** 악성코드에 외부 AI 서비스 (상용 생성형 AI)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, 악성코드 실행 중 AI를 통해 탐지 패턴을 우회한 새로운 공격 코드 생성

* ① 레이미 허그 (Lame Hug) : '25.7월 러시아 해킹그룹 APT28이 우크라이나 국방기관 공격에 사용
② 프롬프트 플렉스(PROMPT FLUX) : '25.11월 구글(GTIG)이 발견한 악성코드로, 외부 AI 서비스 (Gemini)를 사용하여 매시간 새로운 공격 코드를 재작성하고, 보안장비의 탐지 패턴을 우회

- ◆ **[국가 배후 해킹그룹의 AI 기반 공격]** 국가 배후 해킹 그룹 (GTG-1002)이 AI를 사용하여 약 30여 개 글로벌 조직에 침해 시도 ('25.9월, 일부 성공)

•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*하고, 생성형 AI (클로드 코드)를 조작하여 공격의 80 ~ 90%를 자율적으로 수행

* 사람은 목표 설정 및 일부 의사 결정만 수행하고, AI가 공격 방법·전략 등을 결정
(탐색 → 취약점 발견 → 공격 코드 (Exploit) 작성 → 수평 이동 → 유출' 쉘 과정을 AI가 수행)

-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·금융보안원과 함께 'AI 공격은 AI로 방어' 하는 보안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「금융권 보안 위협 대응 방안 (26.5월)」을 마련하고,
 - ▸ AI를 보안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'망 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 (제1차 6월~, 제2차 10월~)', ▸ 적극적인 보안 패치 등을 유도하기 위한 '면책 방안 (7월)', ▸ AI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 (7월)을 발표

그간의 금융권 프런티어 AI 기반 위협 주요 대응 내용

- ◆ (프런티어 AI 관련 금융권 보안 위협 대응 방안 '26.5월) ① AI 보안 위협의 선제적 파악, ② AI는 AI로 방어하는 보안체계 구축, ③ 금융회사의 AI 보안 위협 체계적 대응 지원 등
 - 보안 목적의 AI 활용을 위한 '망 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'(10사 대상 제1차 테스트, 6월~)
- ◆ (면책 조치 '26.7월) ① 보안 목적 AI 활용 테스트, ② 보안 취약점 패치 과정에서 경미한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복구와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제재 면책
- ◆ (가이드라인 '26.7월) ① 경영진 책임 강화, ② 취약점 및 패치 관리, ③ 자산 공급망 관리, ④ AI 기반 방어 자동화, ⑤ 금융권 공동 대응 및 복원력 강화, ⑥ 침해확산 방지 등
- ◆ (제2차 망 분리 규제 긴급 완화 '26.9월) 보안 역량 있는 금융회사·전자금융업자 75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중 15사를 선정하여 제2차 테스트 예정

2 주요 논의사항

(1) AI 기반 보안 위협 대비 태세 강화

- 현재 금융회사 대부분이 IT 위협 관리 체계를 마련·운영하는 등 일정 수준의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, AI 기반의 새로운 보안 위협이 부상하고 있는 만큼 전사적인 차원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
 - 특히, ▸ IT 자산 식별·관리 체계 구축, ▸ 대규모 보안 패치 대비 등의 핵심 과제는 완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므로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
- 이에 금융감독원은 AI 보안 위협 대비 과정에서 우선 보완해야 할 유의 사항을 전달하면서, 경영진이 앞장 서서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에 맞는 보안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·이행해 달라고 요청
 - 아울러, 대응이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밀착 감시, 현장 점검,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임을 안내

프런티어 AI 기반 사이버 위협 대비를 위한 「유의 사항」 주요 내용

- ◆ **(전사적 관리체계 마련·운용)** 경영진을 중심으로 전사적 IT 위험 관리체계를 수립하고, 프런티어 AI 등 새로운 보안환경에 맞추어 정기·수시 검토·개선
- ◆ **(IT 자산 식별·관리)** 모든 IT 자산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, 이를 식별·관리할 수 있도록 면밀한 IT 자산 식별·관리체계 마련·운영

✓ (예시) 시스템, 프로그램, 클라우드, 오픈 소스 등 모든 IT 자산을 파악하고, 전산화 등을 통해 통합 관리하는 한편, 취약점 관리와 연계하여 보호 조치 실행
- ◆ **(보안 취약점 관리)** 보안 취약점 점검·관리를 IT자산 식별·관리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, 단기간 다량의 취약점 발견 시 보정(패치)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·운용

✓ (예시) 자산·업무 중요도, 위험 노출도 등에 따른 '패치 우선순위'를 수립하고, '취약점·패치 정보 신속 획득 → 패치 테스트 → 패치 적용 등 프로세스를 내재화·자동화
- ◆ **(정보보안 위협 대응 체계 고도화)** 고도화된 침해행위 대응을 위해 대응 절차, 정보보호 모니터링, 악성코드 감염·확산 방지 대책, 접근 권한 관리 등 대응 체계 지속 점검·개선
- ◆ **(침해사고 대비책 마련·소비자 보호 철저)** 침해 사고 발생 시 서비스 신속 복구 체계 및 소비자 보호 방안(대체 수단 안내, 피해 사실 통지·보상 등)과 함께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·지원체계 수립·운용

(2) IT 기본 통제 철저 및 금융회사 자율 시정 체계 확립

- 한편, 고도화·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AI 등을 통해 보안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IT 보안의 근간이 되는 기본 통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
 - 최근 주요 IT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기본적인 IT 통제 미흡*이었고, AI 공격은 이러한 틈을 더욱 빠르고 깊게 파고들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
 - * ▸ 중요 보안 패치 미적용, ▸ 퇴직자 계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방치, ▸ 이용자 정보 암호화 미흡, ▸ 프로그램 변경 테스트 미흡 등
-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쏘 금융권을 대상으로 IT 기본 통제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·보완하는 '자율 시정'을 진행 중
 - 금융회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내부 통제 상 미흡 점을 적시에 점검·보완하는 자율 시정 체계를 확립하도록 요청하는 한편,
 - 향후 검사 시 IT 기본 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하고, 기본 통제가 미흡한 고위험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안내

IT 기본 통제 준수를 위한 자율 시정 추진 방안 주요 내용

- ◆ (점검 대상)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상 안전성 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금융회사
- ◆ (점검 방법)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자가 진단 도구를 기반으로 IT 감사인(자체) 등이 주관하여 기본 통제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·보완 ('26.7~11월)
- ◆ (점검 항목) 위반 시 사고 발생 개연성이 큰 5개 IT 기본 통제 부문별 점검 항목 및 점검 착안 사항 등을 포함

구 분(5개 부문)	주요 점검 내용
① 정보처리시스템 보호 대책	☒ 보정작업(Patch) 및 보안 취약점 관리 체계 ☒ 제조사 기술지원 관리체계 등
② 전산 자료 보호 대책	☒ 백업 및 소산 관리체계 ☒ 전산 자료 이용·유출 관리체계 등
③ 해킹 등 방지 대책	☒ 업무시스템 및 솔루션 보안정책 관리체계 ☒ 정보보호 시스템(방화벽 등) 관리체계 등
④ 공개용 웹서버 관리 대책	☒ 공격 표면에 위치한 자산 관리체계 ☒ DMZ 구간에 대한 침해 대응 관리체계 등
⑤ 프로그램 변경 통제	☒ 프로그램 등록·변경·배포·폐기 관리체계 ☒ 긴급작업 관리체계 등

III 주요 당부사항

- 이종오 부원장보는 프런티어 AI 기반의 보안 위협은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현실의 문제가 된 만큼 보다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
 -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진두지휘 아래 전사적 차원의 IT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, 조직·인력·예산을 확충함으로써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
- 또한, AI 기반의 사이버 공격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IT 기본 통제가 흔들리면 사고가 되풀이 되어 금융회사와 고객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, 경영진에 기본 통제 확립을 위한 자율 시정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

- 적극적 자율시정을 통해 미흡사항을 충실히 보완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재 감면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나,
- 형식적·소극적 자율시정에 따라 IT 기본 통제 미흡이 원인이 되어 대규모 IT·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한 엄중 조치할 예정

IV | 향후 계획

□ 금융감독원은 「프런티어 AI 관련 금융권 보안 위협 대응 방안(’26.5월)」과 「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방안(’26.4월)」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융권 전반의 IT·보안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

- (AI 기반 방어 체계 구축 지원) ‘망 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’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‘AI는 AI로 방어’하는 보안체계 구축 지원*

* 제1차·제2차 테스트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, 테스트 결과 확인된 **중요 사항** (AI 보안 위협의 특징, 예상 공격 수법, 효과적인 방어 요령 등) 을 **소 금융권 적시 공유** 및 **AI 보안 가이드라인**에 반영

- (자율 시정 체계 확립) 중요 위협정보, 진단 도구(체크 리스트) 등을 적시 전파하여 선제적으로 점검·조치*하도록 하는 한편, 불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자율 시정의 실효성을 확보

* ’26.2월 본격 가동한 ‘금융보안 통합관제 시스템 (FIRST)’ 을 통해 중요 보안 위협 요인을 금융권에 신속 전파하여 자율 점검·시정 실시 중